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8월 2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4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생명을 얻은 저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박 하 은 -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키가 매우 크고 성숙한 외모에다 혀가 짧고 두툼해서 발음도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발톱은 염증과 통증이 자주 생기는 내향성 발톱이었습니다. 또한 성격은 소심한 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조건과 성격으로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다른 아이들에게서 놀림을 많이 받았고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7살 때 설소대 수술을 받고 또 발음 교정을 위한 언어 치료를 받느라 유치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치과에서 턱을 교정하는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치아나 턱을 교정하는 학생이 흔치 않은 때여서 교정 장치를 틀니로 오해한 아이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교정 장치를 끼고 있으면 더 발음하기가 힘들었는데 책을 잘 읽지 못한다고 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처럼 오래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으면서 제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말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하여 두 배 세 배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왜 나는 또래들과 다른 것이 많고, 왜 이렇게 교정을 오래 해야 하느냐고 따지듯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교회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도 감사의 말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신체 교정과 언어 교정을 위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게 해주셨습니다. 말을 잘하도록 용변학원에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애쓰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학교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무척 즐거워졌습니다. 교회학교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성격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예배와 성경공부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게 해주시고 성가대 봉사도 더 즐거워하며 열심히 봉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교회학교에서 교역자님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보살피 주시며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생활을 위한

어머니와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학하여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근에 우리 성전이 없으므로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주 졸고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과 제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향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며 설교를 듣기보다 교회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학교생활에서도 학업보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수님과 친분을 두텁게 하는 그런 일에 더 열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제 모습을 알아차리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곳 학교 주변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많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므로 혹시라도 그런 집단의 모임에 빠져들까 봐 혼자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며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청년수련회에 참가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게 해주셨습니다. 청년부 동기들을 비롯한 신실한 많은 청년들과 주 안에서 서로 믿음을 복돋우며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품과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바라던 대로 물리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취업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와 청년구역 구역장 직분을 받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사 직분을 맡은 초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봉사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의 생각과 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이 주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자주 교역자님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다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회장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 메일을 보내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 청년들을 안양성전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주일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설교하시느라 무척 피곤하실 텐데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시며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진로와 이성 교제와 결혼 등 우리 청년들의 갖가지 고민을 들어주

시고 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밤늦은 시간에 사모님께서 손수 다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당회장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축복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다짐했는데 2020년 새해가 되자마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하고 이어서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저는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며 열심히 전화심방을 하고 교사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된 후로는 주일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과 안내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 봉사하는 즐거움이 충만해졌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뿌듯하고 봉사할 기회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코호트 격리까지 되므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요 뉴스에 나올만큼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집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집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치는 일이 많아지고 가족에게 화내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활태도를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달은 바를 적극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주중예배 등 모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기, 겸손하고 순종하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하기, 섬기는 마음으로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교회 밖에서도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나타내도록 힘쓰기 등 은혜충만, 성령충만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난해 12월에 서리집사의 존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충만한 사명감과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믿음의 담력으로 즐겁게 봉사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병원에서도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하고 새 직장을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취업이 쉽지 않은 때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실족할 뻔한 위험에 처했을 때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시편 119:10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아멘!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11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

- 본문 : 마태복음 3:13-17
- 요절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마 3:16)
- 찬송 : 183장(새찬송가 283장), 194장(새찬송가 260장)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마 3:5,6).

이 때에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하며 한사코 말렸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니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인과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단강 가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똑같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나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인 의미에서 죄인의 모습을 취하시고, 또한 죄 지은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2. 낮아지신 예수님

요한이 비록 회개의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나 그도 역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죄인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한없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죄 지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

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그의 무한한 겸손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지극히 낮아짐으로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낮아질 때 기뻐하십니다.

3.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때까지 삼 십년 동안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로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요, 이때로부터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신 것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4. 물세례의 의미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예수님도 친히 받으셨던 물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의미로 받았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더욱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3,4)는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 지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물 속에 수장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세례의 참 뜻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